



John 8

요한복음 8
Tape #8076
By Chuck Smith

Let's turn now in our Bibles to John's gospel chapter eight as we continue our journey through the Bible. 성경 전체를 두루 섭렵하는 우리의 여행을 계속하며 이제 요한복음 8장으로 넘어가 보자.

The seventh chapter ended at the end of the last day of the feast of tabernacles. That great day of the feast. And as the chapter ends, it ends with these words, "And every man went unto his own house" (John 7:53). The feast is over, the day is over, every man went to his own house. But in chapter eight it said, 7장은 초막절의 마지막 날이 끝나는 것과 함께 끝났다. 그 날은 절기의 큰 날이었다. 그 장의 마지막에 이런 구절이 나온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요 7:53). 절기가 끝나고 그 날도 끝났으니 모두들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8장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Jesus went unto the mount of Olives (8:1).

Every man went into his own house but Jesus went to the mount of Olives. It sort of goes back to the words of Jesus where He said, "The birds of the air have their nests, the foxes have their holes; but the Son of man has not where to lay His head" (Matthew 8:20). They went to their houses, Jesus went to the mount of Olives. No doubt to spend the night there on the mount of Olives in a garden area that He was used to going to with His disciples, a place where they usually spent the night. And we find that six months later, He will again be going into that area in the mount of Olives where He will finally be arrested and Judas will betray Him. Judas knew the place that Jesus was accustomed to going there on the mount of Olives. So it's sort of poignant kind of a, Every man went to his own house and Jesus went to the mount of Olives. 모든 사람이 자기 집으로 돌아갔으나 예수님은 감람 산으로 가셨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마 8:20). 다들 자기 집으로 갔으나 예수님은 감람 산으로 가셨다. 분명히 감람 산 숲속에서 밤을 지내시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그 곳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밤을 지내곤 하시던 곳이다. 6개월 후에 유다가 배반했을 때 그분은 동일한 장소로 가서서 계시다가 결국은 체포되시고 만다. 유다는 예수님이 늘 가던 그 장소를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아픈 기억을 되살리게 하는 구절이다: 모든 사람이 자기 집으로 돌아갔으나 예수님은 감람 산으로 가셨다.

And early in the morning he came again into the temple, and all the people came unto him; and he sat down, and taught them (8:2).

Yesterday the last day of the feast, we find Jesus stood and cried saying, "If any man thirst, let him come unto Me, and drink" (John 7:37). Now He is sitting down and teaching. He is assuming now the position of a Rabbi and as we have shared with you, in that time and culture, the teachers sat and the pupils stood. And so when Jesus is sitting, He is now in the position of the Rabbi, the teacher, He is sitting to teach the people. 어제 즉 절기 마지막 날에는 예수께서 서서서 이렇게 외치셨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요 7:37). 그런데 이제는 앉으셔서 가르치고 계시다. 그분은 지금 랍비의 위치를 차지하고 계신 것이다. 앞서 말한 대로, 당시의 문화대로 하면 선생들은 앉고 학생들은 서는 게 관례였다. 따라서 예수님이 앉으셨다는 말은 이제 그분이 랍비 즉 선생의 위치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계시다는 뜻이다.

When a person is heralding a truth, they would stand to herald the truth. And so when Jesus was proclaiming the way of salvation, when He was proclaiming the Gospel, a herald of the Gospel, Jesus stood and He cried, "If any man thirst, let him come unto Me, and drink." Now He's going to teach and thus, He sits there in the temple and the people have gathered to listen to Him. And as He is teaching the people, suddenly there is a commotion, 어떤 사람이 진실을 고지할 때, 그는 서서 그 진실을 선포하곤 했다.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구원의 길을 선포하실 때, 복음을 선포하실 때, 복음의 전령이 되실 때도, 그분은 서서서 외치셨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제 그분이 성전에 앉아서

가르치시려 하니까,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자 몰려왔다. 그런데 그분이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동안에 갑자기 소동이 벌어졌다.

As the scribes and Pharisees brought unto him a woman taken in adultery; and when they had set her in the midst, They said unto him, Master, this woman was taken in adultery, in the very act. Now Moses in the law commanded us, that such should be stoned: but what do you say? This they said, tempting him, that they might have to accuse him (8:3-6).

Early in the morning He's teaching. The scribes and Pharisees have caught a woman in the very act of adultery. Probably had spent the night with a man. And now they come dragging her to Jesus. She is probably defiant, rebellious, screaming, quite a commotion. They set her in the midst and they said, We caught this woman, very act of adultery. Moses law said we are to stone her. What do you say? But John is careful to point out, They're trying to catch Jesus. 그분이 가르치시던 때는 이른 아침이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현장에서 한 여인을 붙들어 왔다. 아마도 한 남자와 밤을 지낸 여인이었을 것이다. 그들이 그 여인을 예수께로 끌고 올 동안, 그녀는 반항하고 도전하고 소리지르고 하면서 난동을 피웠을 것이다. 그들은 그녀를 가운데 세우고 말했다: 우리가 이 여인을 간음 현장에서 잡았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되어 있는데, 당신은 뭐라 말씀하겠나이까? 그런데 필자 요한은 용의주도하여 이런 언급을 빼놓지 않고 있다: 저들은 예수를 책잡으려 하는 중이더라.

They knew that Jesus was full of grace and truth. And they're trying to put Him at conflict with the Mosaic law. Because they understood that the law came from God through Moses. And as John said in the first chapter, the law came by Moses and grace and truth by Jesus Christ. And so they're trying to put Him at odds with the Mosaic law. Not only that, the Roman law. The Romans had taken from the Jews the power of capital punishment and only Rome could give the death sentence to a person. 그들은 예수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분을 모세의 율법과 대치시키려 하고 있는 중이다. 그들이 이해하는 바로는 율법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것이었다. 그리고 요한도 1장에서 말하기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온 것이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고 했다. 따라서 그들은 지금 예수를 모세의 율법과 대질(對質) 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 뿐만이 아니라 예수로 하여금 로마 법에도 대항하게끔 일을 꾸미고 있는 것이다. 로마 사람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사형시킬 수 있는 권한을 빼앗아갔다. 그러므로 로마인만이 사람에게 극형을 언도할 수가 있었다.

If Jesus now advocates stoning her, then they will go to the Roman authorities and put Jesus as a rebel to the Roman authority. So they feel that they have Him pretty well trapped in this situation. He can't say, Well, be gracious and merciful, because then they'd say, He is at odds with the Mosaic law; and He can't say, Stone her, because then He would be at odds with the Roman law. 이제 만일 예수가 그녀를 돌로 치는 일을 옹호한다면, 저들은 로마 당국자들에게로 가서 예수를 로마 권위에 도전하는 놈으로 고발할 참이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를 참 잘 엮어 매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예수께서 음... 은혜와 긍휼을 베풀도록 하라 고 말씀하실 수도 없는 게, 만일 그렇게 하신다면 저들은 그분을 모세의 율법에다 고소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녀를 돌로 쳐라 하고 말씀하실 수도 없는 것은, 그렇게 한다면 저들은 예수를 로마 법에다 고소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So Jesus stooped down, and with his finger wrote on the ground (8:6),

Some of the old manuscripts read, 몇몇 오래된 사본에는 이런 기록이 나온다.

as though He heard them not (8:6).

Just sort of ignored them. Just started writing on the ground. So they persisted. They weren't going to let Him get off the hook. 저들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로, 예수님은 뭔가를 땅에다 쓰기 시작하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즐라댔다. 절대로 예수님을 풀어놓아줄 태세가 아니었다.

So they continued asking him, and so he lifted up himself, and said unto them, He that is without sin among you, let him cast the first stone at her (8:7).

That "without sin" is sort of "who has never sinned" among you, let him cast the first stone. "죄 없는 자"란 "한 번도 죄를 짓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너희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가 먼저 돌을 던지라는 얘기다.

And again he stooped down, and wrote on the ground (8:8).

This word “to write” in Greek is “graphin” and this is the word, “kato graphin.” The word “kato” is down, or to cast down. So it has given rise to the theory that what He is writing is incriminations against them. He is recording perhaps there in the dirt their sins. He had just said, “He that is without sin among you, let him cast the first stone.” And then as He began to “kato graphin,” to write down, to make note of, to make a record of, from the oldest to the youngest they began to excuse themselves and leave. Probably as He was writing, first of all, their name and then starting to list some of the things that they have been doing lately, they remembered other obligations that they had and they left. One by one, until they were all gone. “쓰다”라는 단어는 희랍어로 “그라핀”인데 여기서 “카토 그라핀”으로 사용되었다. “카토”라는 말은 아래로 또는 내던지다 라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지금 저들의 죄를 열거하며 땅에다 기록하고 계셨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분은 거기 땅에다 저들의 죄를 적고 계셨을 것이다. 그분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는 “카토 그라핀” 하기 시작하셨다. 즉 땅에다 쓰기 시작하셨다. 기록을 하신 것이다. 그러자 나이 많은 이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자책감이 생겨서 자리를 뜨기 시작했다. 그분이 기록하시기 시작한 내용은 아마도 우선 저들의 이름일 것이며, 다음으로는 저들이 최근에 행한 일들 중 몇 가지였을 것이다. 저들이 등한시했던 의무들도 지적되었을는지 모른다. 그러자 하나하나 다 가 버리고 한 사람도 남지 않게 되었다.

And they which heard it, being convicted by their own conscience (8:9),

It was probably related to their sins. They were convicted by their own conscience, 이 기록의 내용은 아마도 저들의 죄와 관련이 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었다.

they went out one by one, beginning at the eldest, even unto the last: and Jesus was left alone, and the woman standing in the midst. When Jesus had lifted up himself, and saw none but the woman, he said unto her, Woman, where are your accusers? hath no man condemned thee (8:9,10)?

I imagine there was a bit of humor in that, What happened to them? Doesn't anybody condemn you? 여기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는 약간의 해학이 들어 있는 듯하다: 저들이 왜 저러느냐? 이제 너를 정죄할 사람이 하나도 없단 말이나?

She said, No man, Lord. And Jesus said unto her, Neither do I: go thy way, sin no more (8:11).

There was only one person in that whole crowd who was qualified to cast a stone and He refused to do it. There was only one who was sinless among them. 그 모든 사람들 중에서 돌을 던질 자격이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었는데, 정작 그분은 돌 던지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This goes back to the conversation that Jesus had with Nicodemus in the third chapter of John's gospel, where Jesus said, “God did not send His Son into the world to condemn the world, but that the world through Him might be saved. And he that believeth is not condemned: he that believeth not is condemned already, seeing he has not believed in the only begotten Son of God. And this is the condemnation, light came into the world, but men loved darkness rather than light, because their deeds were evil. They would not come to the light, knowing that the light would expose them” (John 3:17-20). 이것은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상기시킨다. 거기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요 3:17-20).

So here were men who came to the light and they were exposed. They left. Only the woman was left. I believe that there was a total change in her attitude. I believe that she came in screaming, scratching, kicking. But as the accusers began to leave, she was moved by Jesus. And when He said, “Where are your accusers? Doesn't anyone condemn you?” She said, “No man, Lord.” I think that there was that total change of her attitude; the rebellion was gone, the anger was gone, the flash in the eye was gone and I think there were tears in her eyes as she looked at the Man of compassion, full of grace and truth, and to hear His words, “Neither do I condemn thee.” 여기 빛으로 다가와 자신들의 그 행위가 드러난 이들이 있다. 그런데

그들은 떠나가 버렸다. 오직 그 여인만 남았다. 그러자 그녀의 행동이 180도 변했을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그녀가 끌려올 때는 소리지르며 할퀴며 밧길질 하며 그랬을 것이다. 그러나 고소자들이 떠나가고 난 후 그녀는 예수님의 태도를 보고 감동을 받았을 것이다. 예수께서 “너를 고소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할 자가 아무도 없느냐?”라고 물으시자, 그녀는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하고 대답하였다. 그녀의 태도가 전적으로 바뀐 것이다. 반항도 하지 않고 분노도 사라지고 눈도 흘기지 않게 되었을 것이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 인자하신 분을 쳐다보는 순간 아마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을 것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듣는 순간 말이다.

Jesus said that He didn't come to condemn but to save. "The Son of man is come to seek and to save that which was lost" (Luke 19:10). Here was one that He was going to die for. Here is one that He came to save. And thus, this beautiful picture. 예수님은 자기가 온 것은 정죄하려 함이 아니라 구원하고자 온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눅 19:10). 그분은 바로 이런 여자를 위해 죽으시려고 오신 것이다. 이런 여자를 구원하시려고 그분은 이 세상에 오신 것이다. 그러니 이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인가.

There are some who say that this does not belong in the Bible. There are a couple of older texts, mainly the Codex Sinaiticus in which this particular account is absent. And thus, Wescott and Hort who compiled a Greek New Testament from which translations are made, decided to leave it out of the text at this point. They did put it in at the end of the gospel of John as sort of an appendage. And some of the modern translations put it in brackets and an explanation of the fact that in some of the older manuscripts, it doesn't exist. They usually say some of the best manuscripts. But I would challenge that the Codex Sinaiticus was a good manuscript. I think it's a very poor manuscript. And I think that's why it has survived. No one wanted to read it because it was poor. So the others that were good manuscripts were worn out and this one remain. 어떤 사람들은 본문의 기사가 원래의 성경에 들어 있는 게 아니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이 특이한 기사가 빠져 있는 고대 사본이 몇 개 있다. 주로 시내 산 사본들이 그렇다. 따라서, 희랍어 신약 역본을 편집한 웨스코트와 호르트는 이 기사를 성서 본문에서 제외해버리고 말았다. 그들은 이 기사를 요한복음 말미에다 부록으로 붙여두었다. 몇몇 현대 역본들은 이 얘기를 괄호 속에 묶은 뒤 몇몇 고대 사본에는 이 기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을 달아 놓았다. 그러면서 첨언하기를 아주 양호한 사본들 속에는 대체로 이 기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내가 감히 말하는데, 시내 산 사본은 양호한 사본이다. 한편 나는 이 사본이 매우 조악한 사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데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사본이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조악한 사본이므로 이것을 읽고 싶어하는 이가 아무도 없다. 다른 사본들은 그렇지 않으므로 많은 이들이 읽어 닳아 버렸지만, 이 사본은 그대로 보존될 수 있었다.

But there is a man who is much more of a scholar than I would ever hope to be, specially in the realm of the original text, Dean Burgon from England who wrote what he called the apostrophe of John in which he gives very strong, powerful arguments for the inclusion of this in the text where it is in the text and shows that the text would be incomplete without it. 그러나 나는 그 사람처럼 될 꿈조차 꿀 수 없을 정도로 유능한 학자가 한 사람이 있는데, 특히 원문 비평 분야에 그런 사람이 있다. 영국 출신의 딘 버곤이다. 그는 스스로 ‘요한복음의 아포스트로피’라 칭한 글을 썼는데, 거기서 그는 이 본문 기사를 성경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아주 강력히 주장하면서 이 얘기가 빠지면 성경이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I personally feel that it is a part and surely it is in the majority text, the Textus Receptus (???) and all, it is there because the majority of the text include this story in place. 나는 이 기사가 성서의 일부분이며 대부분의 사본에는 이 얘기가 반드시 들어 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한다. 레셉투스 본문 등 모든 주요 사본에는 이 기사가 들어 있다.

Then said Jesus again unto them (8:12),

The Pharisees and the scribes who brought the woman, they've left. The people are still there. And “Jesus spoke again unto them,” 이 여인을 붙들어 왔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떠나버렸으나 군중은 여전히 거기에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을 향하여 다시 말씀하셨다.”

saying, I am the light of the world: he that followeth me shall not walk in darkness, but shall have the light of life (8:12).

Jesus has come to bring light into the world that is dark by the result of sin. Light illuminates. Men will not come to the light because it exposes. “This is the condemnation, light has come into the world but men loved darkness rather than light.” And so again, the affirmation and it’s interesting that it is again related to not condemning. “God did not send His Son into the world to condemn the world.” “Neither do I condemn thee.” “I am the light of the world.” I didn’t come to condemn but to bring light. And “he that followeth me shall not walk in darkness.” 예수님은 죄의 결과로 어두워진 세상에 빛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빛이 비친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빛으로 가까이 오지 않으려 한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리고 다시 다음과 같이 긍정적인 말씀들이 나오는데, 흥미로운 것은 그 말씀이 다시 한 번 정죄와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온 것은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빛을 주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John in writing his first epistle said, “That which was from the beginning which we have seen and heard, and have touched” (1 John 1:1). He came and John speaks about how that “if we walk then in the light, as He is in the light, we have fellowship with one another. But he that saith he is in the light and walks in darkness, lies, and does not the truth: But if we walk in the light, as He is in the light, then we have fellowship, and the blood of Jesus Christ is cleansing us from all sin” (1 John 1:6,7). So here Jesus and John is no doubt remembering these words of Jesus when He said, “He that followeth Me shall not walk in darkness.” So a man and often men say, I’m in the light or I’m walking in the light. And yet, they are living in darkness. Their lives are still fraught with sin, darkness. You say you have fellowship with God but John said, You lie, you really do not. “We walk in the light, as He is in the light.” 요한은 그의 서신에서 이렇게 말한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요일 1:1). 이어서 그는 이렇게도 말한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귀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요일 1:6,7). 그러므로 본문에서 요한은 다음과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나는 따르는 자는 어두움 가운데 살고 있지 않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한다: “나는 빛 가운데 있다.” 또는 “나는 빛 가운데서 행한다.” 그러나 그들은 실은 어두움 가운데서 살고 있다. 그들의 삶은 여전히 죄와 어둠에 싸여 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통한다고 말하나, 요한은 여러분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단언한다. 여러분은 사실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분이 빛 가운데 있는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나니.”

The Pharisees (8:13)

Who were still there from the, not the ones that brought the woman to arrest her, but “the Pharisees” 이들은 처음부터 거기에 있던 자들로 간음하던 여인을 잡아 끌고 온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 바리새인들이”

therefore said unto him, You are bearing record of yourself; your record is not true (8:13).

Back in the fifth chapter, verse thirty-one, you remember that Jesus said, “If I bear record of Myself, My record is not true.” He is saying what they would say if He bore record of Himself. And so He said, My Father bears record of Me, John bore record of Me, the works bear record of Me, and He told of all of the witnesses that He had who bore record of Him. Now He declares, “I am the light of the world.” And they immediately pounds on that and they said, You’re testifying for Yourself, and thus we reject it. That’s basically what He was saying back in John 5:31, If I would testify, you would reject it. You’d say, You’re testifying for Yourself. 5장 31절로 되돌아가 보면, 여러분은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할 것이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그분은 여기서, 만일 내가 나 자신에 대해 증거하면 세상이 뭐라고 말하겠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이다. 그런 고로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의 아버지가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요한이 나에게 대해 증거하고, 나의 한 일이 나에

대해 증거 한다. 그분은 자기에 대해 증거 하는 모든 증인들을 열거하셨다. 이제 그분은 이렇게 선언하신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자 그들은 즉각적으로 이 말씀을 문제 삼아 심한 반격에 나섰다: 네가 네 자신에 대해 증거 하니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그분이 요한복음 5장 31에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이다: “내가 증거하면 너희는 그것을 거부할 것이다.” 너희는 내가 나 자신을 위하여 증거하고 있다고 말할 것이다.

So here Jesus then defends it, 그러므로 여기서 예수님은 그런 반응에 대해 자신의 주장을 옹호하신다.

He said, Though I bear record of myself, yet my record is true: for I know from whence I came, and whither I go; but you cannot tell whence I come, and whither I go (8:14).

I know who I am. And I know where I've come from. I know where I'm going, you don't. 나는 내가 누군지 안다. 그리고 나는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안다. 나는 내가 어디로 갈 지도 안다. 그러나 너희는 그런 것들을 모른다.

You judge after the flesh; I judge no man. And yet if I judge, my judgment is true: for I am not alone, but I and the Father that sent me (8:15,16).

So there's another who bears witness with Me. Yes, I've born witness of Myself. But there's another who bears witness with Me, My Father. 따라서 여기 나에 대한 증인이 또 한 명 있다. 그렇다. 지금까지는 내가 나 자신에 대해 증거 해 왔다. 그러나 나를 증거하시는 이가 또 한 분 계시는데, 그는 바로 나의 아버지시다.

It is also written in your law, that the testimony of two men is true (8:17).

There is the confirmation to My witness and that is My Father. 나에 대한 증거를 확정하는 이가 계시니 그분은 바로 나의 아버지시다.

I am one that bear witness of myself, and the Father that sent me He bears witness of me. Then said they unto him, Where is your Father (8:18,19)?

This is one of the many questions that we have in this chapter, Where is Your Father? In other words, Alright, You say Your Father bears witness, show us. Produce Your Father, where is Your Father? 이것은 이 장에서 등장하는 여러 질문들 중의 하나다: 너의 아버지가 어디 계시냐? 다시 말하면, 오냐 네 아버지가 증거 하신단 말이지. 그렇다면 그분을 우리에게 보여 다오. 너의 아버지를 모셔와라. 그분이 어디 계시냐?

Jesus answered, You neither know me, nor my Father: if you had known me, you should have known my Father also (8:19).

Where is Your Father? Produce Him. He said, You don't know Me, if you know Me, you know My Father. You remember in the fourteenth chapter of John, which we will be coming to, Philip said, Show us the Father, and it sufficeth us. This is pretty much what, Show us the Father. And they're saying pretty much, Show us the Father. Jesus answered Philip and said, Have I been so long a time with you, Philip? Haven't you seen Me? He that hath seen Me hath seen the Father. 너의 아버지가 어디 계시냐? 그분을 모셔와라. 예수님은 대답하셨다: 너희는 나를 모른다. 만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나의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여러분은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요한복음 14장을 기억하는가? 빌립이 말했다: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십시오. 그리하면 족하겠습시다. 이 말은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이라'는 말과 거의 동일하다. 그들도 여기서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께서 빌립에게 대답하셨다. 빌립아, 내가 너와 얼마나 오랫동안 함께 있었느냐?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하였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니라.

Here Jesus is saying, If you have known Me, you would know the Father. In other words, there is such an identity, there is such a oneness that to know the One is to know the other. To see the One is to see the other. And so My Father bears witness but you don't know Him. If you'd known Me, you would have known My Father also. 여기서의 예수님 말씀은 이런 뜻이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고 하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두 분은 하나이고 동일하여, 한 분을 알면 다른 한 분도 아는 것이라는 뜻이다. 한 분을 보는 것은 다른 한 분을 보는 것에 해당한다. 그렇듯 나의 아버지가 증거 하시는데도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나의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니라.

These words Jesus spoke in the treasury, as he taught in the temple (8:20):

The treasury was the court of the women. That's where the treasury was. There was the outer court of the Gentiles. Then the court of the women. And then from there, the court of the men, and then on into the actual place of sacrifice. And a woman was only allowed to pass through the court of the men if she was taking a sacrifice in. But there was the outer court of the women and this is where the treasury was. There were thirteen large containers for the treasury. 연보케 앞이란 여자들의 뜰을 말한다. 바로 거기에 연보케가 있었다. 이방인들이 거하는 바깥뜰도 있었다. 그 안쪽에 여자들의 뜰이 있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안쪽에 남자들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는 제물을 실제로 드리는 장소가 나타났다. 여자는 희생 제물을 들고 있을 때에 한해서 남자의 뜰을 지날 수가 있었다. 하지만 대개 여자들은 바깥 뜰에서 있었는데, 거기에 연보케가 있었다. 연보를 위해서 큰 그릇이 13개 놓여져 있었다.

The first six of them were for designated purposes. The first one is for the half shekel, the temple tax that every Jew had to pay each year, the half shekel temple tax. But then the next one was to purchase the sacrifices; for the women the turtledoves and so forth that they had to offer for purification. And then the next one was to buy the wood for the fires that were on the altars. And so the upkeep of the vessels and so forth. 그것들 중 처음 여섯 개는 그 목적이 지정되어 있었다. 첫 번째의 것은 모든 유대인이 매년 바쳐야 하는 성전세 반 세겔을 드릴 때 사용하는 용기였다. 다음의 것은 희생 제물을 구매하기 위한 것이었다. 여자들은 정결을 위한 제물로 산비둘기 등을 드려야 하였다. 다음의 용기는 제단에 바칠 뿔감을 사기 위한 것이었다. 그 그릇들을 갖다 놓는 이유가 그러하였다.

So until there was I think about seven of them that had sort of designated for different, and then the rest were just for anything you have left. Drop it in. And so you had to go by the thirteen collection points and that's where Jesus was teaching now. Porches, large colonnades and porches there where Jesus was teaching. John throws that in, "He was saying these things in the treasury, as He taught in the temple," 그런 식으로 해서 각각 다른 목적에 지정된 그릇이 7개 정도 있었고, 나머지는 어떤 목적으로든 사용될 수 있는 것들이었다. 하여튼, 그런 것들이 13개 있었는데, 바로 거기서 지금 예수님은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다. 그곳은 큰 기둥들이 있는 복도이기도 했다. 요한은 본문 중 여기다 이런 구절을 끼워넣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연보케 앞에서 하신 것이다."

and no man laid hands on him; for his hour was not yet come (8:20).

This hour in which He is to be crucified, this hour in which He calls it, He was to be glorified. The hour of His full dedication and submission to the will of the Father in going to the cross and bearing our sins. 여기서 말하는 때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할 때, 그분의 말씀대로 하면 그분이 영광을 받으셔야 할 때를 가리킨다. 그분이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헌신하시고 복종하셔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로 가시는 시간 말이다.

Then said Jesus again unto them, I go my way, and you will seek me, and you will die in your sins: for where I go, you cannot come (8:21).

They are confused by this.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혼란스러워 하였다.

And the Jews said, Will he kill himself? because he said, Where I go, you cannot come. And he said unto them, You are from beneath; I am from above: you are of this world; I am not of this world. I said therefore unto you, that you shall die in your sins: for if you believe not that I am, you will die in your sins (8:22-24).

"Where I'm going, you cannot come." Why? Because you don't believe that I am. The only way, the only way we can possibly hope to gain heaven as an eternal dwelling place is to believe in Jesus Christ. He said,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fe: no man can come to the Father but by Me" (John 14:6). He's talking about, If you know Me, you would have known My Father. Now I'm going to go away. You're going to seek Me, you won't be able to come where I'm going. Heaven will not be open to you. Though you be a practicing Jew, heaven will not be open to you. You have to believe in Me to gain entrance into heaven. "For if you believe not that I am, you will die in your sins." "내가 가려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하리라." 왜 그런가? 너희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영원히 거주할 곳인 하늘을 얻고자 바랄 수 있는 길, 그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 그분이 언급하고 계시는 내용은 만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나의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니라 는 것이다. 나는 이제 떠나려 하고 있다. 너희는 장차 나를 찾을 것이다. 너희는 내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오지 못할 것이다. 너희에게는 하늘이 열려 있지 않을 것이다. 비록 너희가 실천적인 유대교인이지만, 하늘은 너희에게 열려 있지 않을 것이다. 하늘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너희가 나를 믿어야 한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God has made only one provision for your sins to be forgiven. And that is through His Son, Jesus Christ. You cannot atone for your own sins. You cannot do good works and bring justification. God has only one provision for the forgiveness of your sins and that’s through faith and trusting in His Son, Jesus Christ. Very narrow? Yes, it is. “ Strait is the gate, and narrow is the way [that leads to eternal life], few there be that find it” (Matthew 7:14). Jesus said, “If a person tries to come by any other way, the same is a thief and a robber” (John 10:1). There’s only one way. There’s only one door to the sheepfold—Jesus Christ. 하나님은 너희 죄가 용서 받을 수 있는 단 하나의 규정을 만들어놓으셨다. 죄는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용서를 받을 수 있다. 너희는 너희의 죄를 구속(救贖)할 수 없다. 너희는 선행을 통해 의를 얻을 수 없다. 하나님은 너희 죄가 용서 받을 수 있는 단 하나의 규정을 만들어놓으셨으니, 그것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매우 편협한 규정이라고? 그렇다, 그것은 편협하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마 7:14).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에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요 10:1). 단 하나의 길이 있을 뿐이다. 양의 우리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은 단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이다.

So the second question, 그리고 두 번째의 질문은 이것이다.

Then they said unto him, Just who are you? And Jesus said unto them, Even the same that I said unto you from the beginning. I have many things to say and to judge of you: but he that sent me is true; and I speak to the world those things which I have heard of him. They did not understand that he spoke to them of the Father (8:25-27).

He is now again laying claim that He is only declaring to them the things of the Father, the things that He heard. 그분은 지금 자기가 아버지가 주신 것들을, 자기가 들은 것들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다고 다시 한 번 주장하시는 것이다.

Then said Jesus unto them, When you have lifted up the Son of man (8:28),

This is a term by which is a reference to the cross, “lifted up on the cross.” Again He’ll say, “And I, if I be lifted up, I will draw all men unto Me. Signifying by what manner he would die” (John 12:32,33). 이것은 십자가를 언급할 때 사용되는 표현이다: 십자가에서 “들린 후에.” 예수님은 앞으로 이런 언급을 다시 한 번 하실 것이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요 12:32,33).

I cringe when I hear the chorus, “Let’s lift Him higher, Let’s lift Him higher, that all the world may see.” Oh no, that’s poor theology. It’s referring to the cross and being lifted up on the cross. Here He’s saying, When I am lifted up, when I’m dying on the cross, then you will come to recognize. 나는 이 찬송을 들을 때마다 몸을 움츠리게 된다: “그분을 높이 올리세. 그분을 더 높이 올려서 온 천하가 그분을 볼 수 있게 하세.” 오, 아니다. 이것은 어설픈 신학일 뿐이다. 여기서의 얘기는 십자가에서 높이 달리는 일에 대한 것이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들리게 되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그 때가 되면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니라.

When Jesus was being nailed to the cross, Luke tells us that He prayed, “Father, forgive them; they know not what they do” (Luke 23:34).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이렇게 기도 드렸다고 한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나이다.”

When on the day of Pentecost, the Holy Spirit was poured out, people gathered to observe the phenomena. Peter stood up and he preached to them. And as he preached to them, he preached to them of

“Jesus Christ, who is proved to be of God by the signs and the wonders, which He did in the midst: Whom you, according to the determined counsel and foreknowledge of God, with your wicked hands have crucified and slain. Who God has raised from the dead, and who has ascended into heaven. And has given forth this gift of the Holy Spirit, which you now see. The people being convicted, said, Men and brethren, what shall we do since seeing we have crucified the Lord of glory? Peter said, Repent, and be baptized, in the name of Jesus for the remission of sins, you’ll receive the gift of the Holy Spirit” (Acts 2:22,23,24,32,33,38). 오순절 날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사람들은 그 현상을 보기 위하여 모여들었다. 그 때 베드로가 일어서서 그들에게 설교했다. 그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 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Acts 2:22,23,24,32,33,38).

He acknowledged, For I realize that in ignorance, you did it. Interesting, Jesus said, “Father, forgive them; they know not what they do” (Luke 23:34). They’re ignorant of what they’re doing. 베드로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한 줄 아노라” 하고 말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눅 23:34). 그들은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했다.

Now these people who were there, crucifying Him in ignorance, lifting Him up in ignorance, now they are saying, What shall we do? Peter said, I know that you did it ignorantly. But he offered to them the way of salvation because what you did, you did ignorantly. So the prayer of Jesus was really answered on the day of Pentecost. When Jesus prayed, “Father, forgive them; they know not what they do.” 거기 있던 이 사람들은 무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며 무지해서 그분을 나무에 달았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너희가 몰라서 그런 것을 한 줄로 안다. 하지만 하나님은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제공해주셨다. 너희가 모르고 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예수님의 기도는 오순절 날 응답을 받았던 것이다. 예수님이 드린 기도는 이런 내용이였다: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사하소서. 저들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Jesus is saying, When I’m lifted up, you’ll understand now these things, when I’m crucified.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들림을 받게 되면 너희는 이런 일들을 이해하게 되리라.

And then you shall know that I am (8:28),

The word “he” is inserted. He’s just using this name of God, “I am,” the “ego eime.” 여기서 “그”라는 말은 삽입된 단어이다. 예수님은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나는 ...이다(I am)” 즉 “에고 에이메”라고 칭하셨다.

and that I do nothing of myself; but as the Father hath taught me, I speak these things. And he that sent me is with me: the Father has not left me alone; for I do always those things that please him (8:28,29).

What a statement. “I do always those things that please Him.” Would to God I could make that statement! I do so many things to please myself. Only Jesus could say, “I do always those things that please Him.” 이 얼마나 대단한 말씀인가. “나는 언제나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한다.” 나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진술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사실은, 내가 나를 즐겁게 하는 일들을 아주 많이 행하고 있는 까닭이다. 예수님만이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다: “나는 언제나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한다.”

As we read in Psalm 40 this morning, when it becomes prophetic concerning Jesus, in verses seven and eight, “Then said I, Lo, I come: in the volume of the book it is written of me, I delight to do thy will, O my God: yea, thy law is within my heart” (Psalm 40:7,8). Goes right along with, “I do always those things that please Him.” The Father’s with Me, He hasn’t left Me alone. 우리는 오늘 아침에 시편 40편 7절과 8절을 읽었다.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적힌 구절이다. “그 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며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시 40:7,8). 이 말씀은 “나는 언제나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한다”라는 구절과 얼마나 잘 어울리는가. 아버지는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혼자 두지 않으셨다.

And where was this really fulfilled then? He’s talking about being lifted up. When I’m lifted up. When Jesus is on the cross, He is there to please the Father. For it has pleased Him to put Him to death for our sins. “Not what I will, Thy will be done” (Mark 14:36). It was submission to the will of the Father. 그렇다면 이 구절은 참으로 어디서 실현되었는가? 그분은 자신이 들리는 것에 대해 말씀하셨다: 내가 들리게 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셨을 때, 그것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자 그렇게 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우리 죄를 위하여 죽이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이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막 14:36). 이것은 바로 아버지의 뜻에 대한 복종이었다.

“This is My beloved Son,” He said, “in whom I am well pleased” (Matthew 3:17). When did He say that? When Jesus said, “It becomes Me to fulfill all righteousness” (Matthew 3:15). That is, to be obedient in all of the issues of righteousness and the Father acknowledges, “I am well pleased.” “I do always those things that please Him.”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마 3:17). 언제 그런 말씀을 하셨나? 예수께서 “나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게 마땅하니라” (마 3:15)고 말씀하셨을 때이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의의 일들을 행하여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뜻이다. 아버지는 그것을 인정하시고 “내가 기뻐하노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나는 언제나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한다.”

It should be a goal of each of our lives. What would please the Father in this? How can I please the Father? What would please the Father? It think that oftentimes we make a mistake by trying to drive a fine line of definition between right and wrong. And I think that often we are able to justify certain things like, It’s not too bad, there’s nothing really wrong about it. And we’re trying to define right and wrong, and I don’t think that really is the issue. I don’t think that that’s the question we should be asking. Is it right or is it wrong? I think the issue is, Is it pleasing? Does it please the Lord that I do this? Is He pleased with my actions? And Jesus could say, “I do always those things that please the Father,” and that should be really our goal and our aim, to please the Father. Because I may be able to prove that it’s alright to do it, but it may not be pleasing to the Father that I do it. Does it please Him? 바로 이것이 우리 각자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이 일을 하면 그 무엇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어떤 일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것인가? 우리는 종종 선과 악을 세밀히 구별하고자 애를 씀으로써 실수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나는 우리가 종종 어떤 것들을 합리화시키려고 애를 쓴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잘못 된 것이 하나도 없어, 이걸 크게 나쁜 일이 아냐 하면서 합리화시킨다. 우리는 선과 악을 구별하려고 애를 쓰는데, 내가 보기에 그것은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게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이 아니다. 문제는 이것이 기쁘시게 하느냐? 이다. 내가 이 일을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그분이 나의 행위로 인하여 즐거워하실까? 예수님은 “나는 언제나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한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셨다.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참으로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하며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그 일을 하는 게 별 문제 없을 것이라는 점을 내가 증명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 일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이 일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가?

As he spake these words, many believed on him (8:30).

But now He’s going to address those that believe upon Him because it’s, at this point, just a persuasion

but it isn't a commitment. There are a lot of people who come to sort of a persuasion that yes, these things are true. Yes, He must be the Son of God. They have a mental persuasion but there's not a commitment. And so Jesus is going to really challenge them now. He's going to really test their belief. He's going to say things that are going to upset them. Find out just what you do believe. 그런데 이제 그분은 그분을 믿는 사람들에게 연설하려 하신다. 이 시점에서 그들의 믿음은 신념일 뿐 헌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신념을 가지고만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습니다. 이것들은 진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임에 틀림 없습니다. 이들은 지적으로는 동의하지만 헌신은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은 그들에게 참으로 도전을 하려 하시는 것이다. 그들의 신앙을 시험해보고자 하시는 것이다. 그분은 그들을 화나게 할 얘기를 하고자 하신다. 너희가 진짜 무엇을 믿는지를 확인해 보라.

Then said Jesus to those Jews which believed on him (8:31),

He's addressing them now and He's going to get into some pretty heavy duty stuff with them. "Then said Jesus to those Jews which believed on Him," 그분은 지금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동안, 참으로 어려운 의무 문제를 그들과 논하려 하시는 것이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다."

If you continue in my word, then you are my disciples indeed (8:31);

You believe now but there's more than just believing. You must continue in the word to be a disciple. Got to be more than just a head trip. More than just, Well yes, this must be the Son of God. There's got to be that commitment of the heart and the continuing in the word. Then a true disciple. 지금 너희는 믿고 있다. 그러나 그런 믿음보다 더한 것이 있다. 너희는 말씀 안에서 계속 행하여 제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단순한 정신수양의 대상이 아니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 이상으로 나아가야 한다: '음... 그렇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분명합니다.'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헌신이 있어야 하고, 말씀 안에서 지속적인 행함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 진실한 제자가 될 것이다.

And you shall know the truth, and the truth shall make you free. They answered him, We are Abraham's seed, we were never in bondage to any man: how sayest thou, You shall be made free (8:32,33)?

The nation of Israel was in bondage in Egypt. They went into bondage to Babylon. They were in bondage to Syria. And now they are in bondage to Rome. What do they mean, We were never in bondage to any man? Roman soldiers are walking their streets. They're paying taxes, just resenting it, to the Roman government. And yet they say, We were never in bondage to any man.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다. 그 다음에 그들은 바벨론으로 잡혀갔다. 그들은 시리아에서 종 노릇하기도 했다. 그런데 지금은 로마의 종이 되어 있다. 그런데도 너희는 그 어느 누구에게도 종살이한 적이 한 적이 없다고 말하다니, 그게 가당하기나 한 소리냐? 로마 군병이 지금 거리에서 활보하고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분강개하면서도 로마 정부에 세금을 바치고 있다. 그러면서도 그 어느 누구에게도 종살이한 적이 한 적이 없다고 너희는 말하고 있구나.

In a sense, this is true that spirit was never conquered. They were always rebelling against whatever authority was over them, even the authority of God. They were never really in real submission to God. And that spirit seem to be just a part of them and thus they declare, We were never in bondage to any man. Oh yeah, they might be ruling over us, they might be walking our streets and we might pay taxes to them but in our hearts, we're still not in bondage. 어떤 의미에서는 그 말이 맞는 말이기도 했다. 그들의 정신은 결코 정복 당한 적이 없었으니까 말이다. 그들은 언제나 자신을 지배하는 권세에 도전하곤 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권세에 대해서도 반항을 했다.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께 진실로 복종한 적이 없었다. 그런 정신이 남아 있었으니, '우리가 그 어느 누구에게도 종살이한 적이 한 적이 없다'고 큰소리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아, 맞습니다. 저들이 우리를 지배할 수는 있습니다. 저들이 우리의 거리를 누비며 우리는 그들에게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속에서는 우리는 결코 종살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But Jesus answered them (8:34),

And of course, they're thinking of it in a physical way and Jesus is talking to them in spiritual things and always there is that misunderstanding because Jesus is so often speaking in the spiritual realm and man is

thinking in the physical realm. And so Jesus answered them and said, 물론 그들은 지금 물리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반면에 예수님은 영적인 것들에 대해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셨다. 그러니 항상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 예수님은 너무도 자주 영적 세계에서 말씀하시는 반면에 사람들은 물리적인 세계에서 생각을 하고 있으니 말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Verily, verily, I say unto you, Whosoever committeth sin is a servant of sin. And the servant abides not in the house for ever: but the Son abides ever (8:34,35).

If you commit sin, you are a servant to sin. By whatsoever a man is overcome, by the same is he brought into bondage. A servant of sin. “Whatever it is by which you are overcome, you become a slave to it” (2 Peter 2:19). So Jesus is talking about the bondage of sin, the bondage of corruption, as the scriptures call it. The servant does not abide in the house forever. He can be released at any time. But the Son, He abides forever. 너희가 죄를 짓는다면 너희는 죄의 종이 된 것이다. 사람이 무엇에 의해 정복이 되든 그는 그것의 종이 된 것이니라. 죄의 종이 된 것이니라.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벧후 2:19). 여기서 예수님은 죄의 종이 된 것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면 썩어질 것의 종살이를 한다는 것이다. 종은 영구적으로 집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 그는 언젠가는 내어 쫓김을 당할 수가 있다. 그러나 아들은 영원히 거하게 된다.

If the Son therefore shall make you free, you will be free indeed (8:36).

The true freedom that we have in Jesus Christ Who breaks the power that sin had over your life. I love that song,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가지고 있다. 그분은 우리 삶을 지배하는 죄의 권세를 파괴하신 분이시다. 나는 그러므로 이런 노래를 좋아한다.

He breaks the power of cancelled sin, 그분이 죄를 파하시고 깨뜨리셨네

He sets the prisoner free. 그분이 포로를 자유 하게 하셨네

His blood can make the foulest clean, 그분의 피는 가장 더러운 자도 씻을 수 있다네

His blood availed for me. 그분의 피는 내게도 효험을 발한다네.

The power of Jesus. “Whom the Son sets free is free indeed.” How we enjoy and love that freedom that we have in Jesus Christ. And He said, 이는 예수님의 권세이다. “아들이 자유롭게 만드는 사람은 참으로 자유 하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우리는 얼마나 즐기고 사랑하는지 모른다. 그분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I know that you are Abraham's seed (8:37);

They said, We're Abraham's seed, we were never. I know you're Abraham's seed,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우리는 결코 누구에게도 종 노릇을 한 적이 없습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일 줄 아노라.’

but you seek to kill me, because my word hath no place in you. I speak that which I have seen with my Father: and you do that which you have seen with your father (8:37,38).

Now He's making the distinction. My Father and your father. I'm doing the things of My Father; you're doing the things of your father. You're trying to kill Me. That's the desire of Satan, to destroy the Son of God. So you're going about to kill Me and thus, you're doing the things that you have seen with your father. 이제 그분은 나의 아버지와 너희 아버지의 차이를 분명히 하고 계시다. 나는 나의 아버지의 일을 행한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의 일을 행한다. 너희는 나를 죽이려 하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것은 사단의 일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죽이고자 하는 것이요, 너희는 너희 아버지가 행하는 일을 너희가 본 그대로 꼭 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

They answered and said unto him, Abraham is our father. Jesus said unto them, If you were Abraham's children, you would do the works of Abraham. But now you seek to kill me, a man that hath told you the truth, which I have heard of God: Abraham didn't do this (8:39,40).

“Abraham believed God; it was accounted to him for righteousness” (Genesis 15:6). Paul said, “Not all who are of Israel, are Israel” (Romans 9:6). They again are thinking in the terms of the physical. I'm a

physical descendant of Abraham. My genealogy goes back to Abraham, we have Abraham as our father. And Jesus said, “No, if you were Abraham’s children,” now Jesus is talking in the spiritual realm, “then you’d be doing the works of Abraham.” Abraham was the father of a spiritual race, of those who believed in the word of God. And so, Abraham didn’t do what you’re doing.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므로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겼더라” (창 15:6). 바울은 “이스라엘에 속한 자라고 해서 모두 이스라엘은 아니다” (롬 9:6)고 말했다. 여기서도 저들은 물리적인 관점에서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물리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내 족보는 아브라함까지 거슬러올라 가며, 우리는 아브라함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일을 행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영적인 세계에서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다. 아브라함은 영적인 종족의 조상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의 조상이었다. 아브라함은 너희가 행하는 그 일을 한 적이 없다.

You do the deeds of your father. Then they said unto him, We be not born of fornication; we have one Father, even God (8:41).

Jesus is actually here pressing the issue, their father, and they are now cutting, very cutting. “We are not born of fornication.” Sort of an intimation concerning His birth. That secret of Mary was not a secret. When Mary and Joseph were married, the people counted the months. And thus, Jesus was accused of being conceived out of wedlock, which indeed, of course, He was. But they are using it now, “We were not born of fornication” as a very cutting remark to Jesus. And they said, “We have one Father, even God.” Now they are claiming God is their Father. 예수님은 여기서 사실상 ‘그들의 아버지’라는 본론을 꺼내놓으신 것이다. 이제 그들은 날카로워졌다. 아주 날카로워졌다. “우리는 음란의 자식이 아니다.” 이는 예수님의 출생을 암시하는 말이기도 했다. 당시 마리아의 이야기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다. 마리아와 요셉이 결혼을 했을 때, 사람들은 그 두 사람의 신혼 살림의 개월 수를 세고 있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혼외 정사를 통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비난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But Jesus said unto them, If God were your Father, you would love me: for I proceeded forth and came from God; neither came I of myself, but he sent me (8:42).

You’re wanting to kill Me because your father, Satan, wants to destroy Me. You’re doing the works of your father because you want to kill Me. “If God were your Father, you’d love Me.” And so, when you see people today it’s their response and reaction to Jesus Christ is very revealing as to who their father really is. If God is your Father, then you would love Him. “For I proceeded forth and came from God; neither did I come of Myself, but He sent Me.” He said, I didn’t come to do My own will, but the will of Him that sent Me.” 너희는 나를 죽이고 싶어한다. 너희의 아버지 사단이 나를 죽이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다. 나를 죽이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만일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라면 너희는 나를 사랑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오늘날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반응과 태도가 그들의 아버지가 진실로 누구인지를 나타낼 것이다. 만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라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그분은 내가 온 것은 나 자신의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Why do you not understand my speech? even because you cannot hear my word (8:43).

There is that hardness of heart, deafness of ear. 이들은 마음이 강퍅하고 귀가 먹은 자들이었다.

You are of your father (8:44)

Now He’s going to get very pointed. “You are of your father” 이제 그분은 매우 정곡을 찌르는 말씀을 하고자 하신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로부터 났다.”

the devil, and the desires of your father you will do (8:44).

They did crucify Him. They did fulfill the desires of their father, the devil, in seeking to destroy God.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들은 그들의 아버지 마귀가 원하는 바를 행하며 하나님을 없애버리려 하였다.

He was a murderer from the beginning, and he abode not in the truth, because there is no truth in him.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 안에 거하지 않는 자였다. 이는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When he speaks a lie, he is speaking of his own nature: for he is a liar, and the father of it (8:44).*

Two accusations, he's a murderer and he's a liar. He wants to murder Me. I am the truth, he wants to extinguish the truth. He's a liar and has been a liar from the beginning. You will know the truth, the truth will make you free. But the lies of Satan will bring you into bondage, into the bondage of corruption and sin. Powers of darkness. 두 가지 죄상이 언급되었다. 마귀는 살인자이며 거짓말쟁이라는 것이다. 그는 나를 죽이고 싶어한다. 나는 진리인데, 그는 그 진리를 없애버리고 싶어한다. 그는 거짓말쟁이며,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였다.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인데, 진리는 너희를 자유롭게 만들 것이다. 그러나 사단의 거짓말은 너희를 속박할 것이다. 너희는 썩어짐과 죄에 의해 얽매이게 될 것이다. 어두움의 세력에 의해 구속(拘束) 받게 될 것이다.

And because I tell you the truth, you do not believe me. Which of you convinces me of sin (8:45,46)?

Which of you can point out sin in Me? I wouldn't dare say that. We could get a long line of witnesses here. But Jesus lived such a life He could say, Which of you convinces me of sin, can show sin in Me? 너희 중에서 누가 내 안에서 죄를 지적해낼 수 있겠느냐? 나도 감히 그런 말을 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에게서 우리 죄를 지적할 증인들이 구름같이 많이 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얼마나 흠 없는 삶을 사셨는지, '너희 중에 누가 나의 죄를 밝혀내겠으며 내 안에 들은 죄를 드러내보일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실 수 있었다.

And if I say the truth, why do you not believe me? He that is of God hears God's words: you therefore hear them not, because you are not of God (8:46,47).

Very strong statements but yet very probing kind of statements by which we need to look at ourselves. Do I hear His words? Do I submit? That is, hearing in the sense of submitting to the word. Then I am of God. But if I am rebelling, not listening, then I am not of God. 매우 강력한 말씀이지만 이는 또한 매우 성찰케 하는 말씀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 말씀에 비추어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나는 복종하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그 말씀에 복종한다는 의미에서 듣고 있는가? 말이다. 그렇게 한다면 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나 만일 내가 반항한다면,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Then answered the Jews, and said unto him, Did we not say well that you are a Samaritan, and you have a devil? Jesus answered, I have not a devil; but I honour my Father, and you dishonour Me. And I seek not mine own glory: there is one that seeks and judges. Verily, verily, I say unto you, If a man will keep my saying, he shall never see death. Then the Jews said unto him, Now we know that you have a devil. Abraham is dead, and the prophets; and you say, If a man keeps Your saying, he will never taste of death (8:48-52).

Again they're thinking in terms of the physical, Jesus is speaking in the realm of the spiritual. It's awfully hard to converse with a person that only thinks in the realms of the physical; hard to talk to them about spiritual things. "The natural man does not understand the things of the Spirit: neither can he know them, they are spiritually discerned" (1 Corinthians 2:14). And so we find ourselves oftentimes frustrated as we're trying to talk to people about spiritual things and they can only think in the realm of the natural. 다시 말하는데, 저들은 물리적인 관점에서 생각하고 있었고, 예수님은 영적인 세계에서 말씀하고 계셨다. 물리적인 세계에서만 생각하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은 엄청나게 어렵다. 그런 사람에게 신령한 일에 대해 말한다는 것은 아주 어렵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고전 2:14). 우리도 자연 세계에서 생각할 줄만 아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것에 대해 말하고자 애쓸 경우 종종 좌절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When Jesus said, "If a man keeps my words, he shall never see death," He's not talking about physical death. He's not saying that you're going to go on living forever in this old corrupted body. Wouldn't it be horrible to have to live forever in this body of corruption? I could think of nothing worse than living forever in this body that's getting more decrepit everyday. Going to pieces. But you got to stay in it, man. No way! Free me. 예수께서 "사람이 나의 말을 지킨다면 그는 죽음을 보지 않게 될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육신적인 죽음에 대해 말씀하고 계셨다. 그분은 ‘너희는 이 낡고 썩어질 몸에서 영세토록 살게 될 것이니라’고 말씀하려는 게 아니었다. 이 부패될 몸에서 영원토록 살아야 한다면 끔찍한 일이 아니겠는가? 날로 더 노쇠해 가는, 날로 붕괴되는 이 몸을 지고 영원히 사는 것보다 더 고약한 일은 없을 것이다. ‘어쨌든 인간이여, 너희는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나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Paul said, “We know that when this tent is dissolved [this body in which we presently live], we have a building of God, not made with hands, that is eternal in the heavens” So then, we who are in these bodies do often “groan, earnestly desiring [to be free. Not to be an embodied spirit but] to be clothed upon with a body which is from heaven” (2 Corinthians 5:1,2). And as time goes by, and as the body begins to wear out, and it can no longer fulfill the purposes and functions for which God designed it, for He designed it to be the medium by which I can express myself. But I find that my body is beginning to restrict me. I’m not as agile as I once was. I can’t jump off of walls anymore. I let myself down carefully. You learn to live with the limitations and you get to the place where you begin to long to be free. Not to be unembodied, but to receive that new body which is from heaven and to move on into the eternal aspects of the kingdom of God. 바울은 이렇게 말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고후 5:1,2). 세월이 흐르고 나니 그래서 내 몸이 낡기 시작하니, 이 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과 기능을 더 이상 성취할 수 없게 되었다. 하나님은 내가 이 몸을 통해서 활동하기를 원하시나, 내 몸이 나를 제한하기 시작하고 있다. 나는 이전처럼 그렇게 기민하지 못하다. 나는 더 이상 담 위에서 뛰어내릴 수 없다. 조심해서 내리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제한적인 요소들을 감내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 여러분은 이곳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어한다. 여러분은 이 몸을 벗어 던지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원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So Jesus when He said, You will never die, He’s talking about the second definition of death in the scriptures which is the separation of a man’s consciousness from God. The Bible says that a person who lives for pleasure is dead while they yet live. There’s no consciousness of God. That’s spiritual death. And when Jesus is here saying, “If a man keeps My saying, he will never see death,” He is saying, You’ll never be consciously separated from God. Spiritual death. 그러므로 예수께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성서에서 말하는 둘째 사망의 정의에 대해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다. 사람의 의식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사망 말이다. 성경은 쾌락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비록 살았다고는 하나 죽은 것이니라 고 말한다. 하나님께 대한 의식이 없으니 영적으로 죽은 것이다. 여기서 예수께서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 말씀은 너희가 의식(意識)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결코 분리되지 않을 것이니라 는 의미였다. 영적인 죽음은 당하지 않으리라는 얘기였다.

He’s not saying you’re going to live forever in this body. Don’t worry. But you’ll never be separated from God. And “to be absent from this body is to be present then with the Lord” (2 Corinthians 5:8). So they are thinking in the terms of the physical, and the Jews said unto Him, “Now we know that You have a devil. Abraham is dead, the prophets, and now you say, If a man keeps Your saying, he will never taste of death.” 너희가 이 몸 안에서 영구적으로 살게 될 것이니라 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아니다. 걱정하지 말라. 너희는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다” (고후 5:8). 그러므로 육신적인 견지에서 생각하고 있던 유대인들은 예수께 이렇게 말씀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우리는 지금 네가 귀신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Are You greater than our father Abraham, which is dead? and the prophets who are dead: whom do you make yourself (8:53)?

An important question. “Whom do you make yourself?” 이것은 중요한 질문이다: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Jesus answered, If I honour myself, my honour is nothing: it is my Father that honoureth me; of whom you say, that he is your God (8:54):

“Who do you make Yourself?” Tell you what, My Father is the One You’re calling God. You call Him God. He’s My Father. So who’s He making Himself? He’s making Himself the Son of God.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사실을 말하겠노라. 내 아버지는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분이시다. 너희가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그분이 바로 내 아버지시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여기서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는 질문에 답하여,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시는 것이다.

Yet you have not known him; but I know him: and if I would say that I don’t know him, I would be a liar like you: but I know him, and I keep his saying (8:55).

Things are pretty hot at this point. They’ve accused Him of being born of fornication and all, Samaritan, You have a devil. They’re making all of these accusations. And so Jesus comes back and He said, If I said I didn’t know Him, then I would be a liar just like you are. And then He said, “Yet you have not known Him; but I know him,” and so forth. “But I know Him, and I keep His saying.” So “I do always those things that please the Father, I do the things that I see of the Father.” And now, “I keep His saying.” 이 시점에서 논쟁은 매우 뜨겁게 달아올랐다. 저들은 예수님을 혼외 정사를 통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비난했으며, 사마리아인이라 칭하며 비난했고, 귀신이 들렸다고도 했다. 그들은 이 모든 비난을 퍼부어댔다. 예수께서는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하셨다: 만일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면 나도 너희처럼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 “너희는 그분을 모르겠지만 나는 그분을 안다.” “나는 그분을 알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지키기도 한다.” “나는 언제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며, 나는 내 아버지로부터 본 것을 행한다.” 그런데 지금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그분의 말씀을 지키노라.”

Your father Abraham rejoiced to see my day: and he saw it, and was glad. The Jews then said unto him, You’re not yet fifty years old, and have you seen Abraham (8:56,57)?

What did Jesus mean, “Abraham rejoiced to see My day?” Of course, there could be a couple of things. God spoke to Abraham and gave to him a promise. That from his seed, all of the nations of the earth would be blessed. Abraham rightly interpreted that as meaning that he would be a progenitor of the Messiah. That’s what God was promising. And so Abraham believed God, this promise of God, and “it was accounted unto him for righteousness.” His faith in this promise of God that the Messiah will come from you. He’ll be a descendant of yours. His belief in that, God counted his belief for righteousness. Belief what? That the Messiah would come from him. So Abraham believed in Jesus.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였다”가 무슨 의미일까? 물론 몇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으며 약속을 주셨다. 그의 씨로 인하여 지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리라는 약속이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자기가 메시아의 조상이 될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는데, 이는 올바른 것이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이 바로 그것이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그분의 이 약속을 믿었는데,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김을 받게 되었다.” 그는 메시아가 네게서 나오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메시아는 너의 후손이 될 것이다. 그는 이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무엇을 믿었는가? 메시아가 그에게서 나오리라는 약속이다. 그러므로 그는 예수를 믿은 것이다.

We are told in the book of Hebrews that “these all died in faith, not having received the promise, but seeing it afar off, they embraced it, and they claimed they were just strangers and pilgrims” (Hebrews 11:13). So hearing the promise of God, seeing it afar off, he embraced it. But “Abraham rejoiced to see My day.” In a spiritual sense, Abraham saw His day, or saw Him.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온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히 11:13).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으며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하였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였다.” 영적인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그분의 때를 보았으니 즉 그분을 보았던 것이다.

What do you mean Abraham has seen You? In the Old Testament, when Lot was captured by the five kings who invaded that territory and took captives, when Abraham got his servants and they pursued after the five kings and delivered Lot, as they were returning back to the area, the priest and the king, he is called both the priest and king, of peace came out to meet Abraham. His name was Melchizedek. And Abraham gave to him a tenth, a tithe of all of the loot that he had taken in the battle against the five kings. And he offered to Abraham bread and wine, the symbols of communion. ‘아브라함이 너를 보았다니 그게 무슨 의미냐?’ 구약에 보면, 롯이 다섯 왕들에게 침공을 받아 사로잡혀간 얘기가 나온다. 그 때 아브라함은 자기 가신들을 데리고 뒤쫓아가서 롯을 구한 뒤 돌아오는 길에 한 제사장을 만났다. 그는 제사장이면서 평화의 왕이라고 불렸는데, 아브라함을 맞으러 나오던 참이었다. 그의 이름은 멜기세덱이었다. 아브라함은 그에게 다섯 왕들과 싸워 빼앗은 모든 전리품 중에서 십분의 일을 즉 십일조를 드렸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었는데, 이는 성찬식의 상징이었다.

There are many who believe that Melchizedek was one of what they call the Christophanies or the appearances of Christ in the Old Testament. We do read in the book of Hebrews that Jesus is a priest forever, after the order of Melchizedek. The declaration of Jesus was a high priest would be challenged by the Jews, He is of the tribe of Judah, the tribe of Levi was appointed as the priestly tribe. And so the book of Hebrews declares, He is a tribe, not after the Levitical order but “He is a priest forever, after the order of Melchizedek” (Hebrews 6:20). And so there are those who believe and affirm, and I am one of them, that Melchizedek was an appearance of Jesus. The fact that He’s called the King of peace and the King of righteousness. And He appeared to Abraham. Abraham paid tithes unto Him. And of course, the tithes are paid by the lesser to the greater. 이 멜기세덱과의 만남이 구약 시대에 그리스도가 출현한 사건 중의 하나라고 믿는 이들이 많다.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다. 예수를 대제사장이라고 선언했다면 유대인들로부터 도전을 받았을 것이다. 레위 지파 출신만이 제사장으로 임명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 출신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분이 레위 지파를 좇은 게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었다” (히 6:20)고 선언했던 것이다. 따라서 멜기세덱이 예수의 현현(顯現)이라고 믿고 긍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도 그들 중의 한 사람이다. 그가 평강의 왕이며 의의 왕이라고 불린 사실도 그것을 뒷받침한다.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에게 십일조를 바쳤다. 물론 십일조는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드리는 것이다.

So “Abraham rejoiced to see My day: and he saw it, and was glad.” So they challenged Him and said, “You’re not yet fifty years old.” 이렇듯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며 그분께 도전했다: “네가 아직 오십도 못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I wonder if Jesus, because of the hardships in life looked older than, He was only in His early thirties at this point. But I wonder if the severity of life made Him look older. “You’re not yet fifty years old.” Have you seen Abraham? 예수님은 이 때쯤 30대 초반에 지나지 않으셨을 것인데 살아오시면서 하도 간난신고를 많이 겪으셔서 제 나이보다 더 늙어 보이셨나 보다. 분명히 삶의 고달픔이 그분을 더 늙어 보이도록 만들었을 것이다. “네가 아직 오십도 못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던 말이나?

Jesus said unto them, Verily, verily (8:58),

When He gets to these “Verily, verily,” stop. You’re going to get some important stuff here. Back in fifty-one, “Verily, verily, I say unto you, he that keeps my saying, shall not see death.” Now again, “Verily, verily,”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분은 “진실로 진실로” 하고는 한참 쉬셨을 것이다. 이제 여기서 너희는 어떤 중요한 내용을 듣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였다. 51절에서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고 하셨는데, 그분은 여기서 다시 “진실로 진실로” 말씀을 하신다.

I say unto you, Before Abraham was, I am (8:58).

He didn’t say, I was. Before Abraham was, I was. But “before Abraham was,” and now He uses that

eternal name of God, “I am.” Who are you? Who do you make Yourself? You want to know? Before Abraham was, I am. The eternal. 그분은 ‘내가 있었느니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고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계시는 분이 지금 하나님의 영원한 명칭 즉 “내가 있느니라”를 사용하시는 것이다. 너는 누구냐?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가 알고 싶으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는 영원자를 가리키는 말이었다.

Their response was the response of their father, the murderer from the beginning because, 저들의 반응은 저들의 아버지의 반응과 마찬가지로였다. 저들의 아버지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저들은 다음과 같이 했다.

They took up stones to cast at him: but Jesus hid himself, and went out of the temple, going through the midst of them, and so passed by (8:59).

The idea or indication seems to be that He just sort of became invisible. Walked right on past them. But as we can well imagine, the tensions are hot. They're ready now. And since they believed Him, so He said these to those that believed. But boy, now they're ready to take up stones. They can't handle His words. “Before Abraham was, I am.” 여기서 암시하는 바는 그분이 자기 몸을 가리는 일종의 호신술을 사용하셨다는 게 아닌가 한다. 어쨌든 그분은 저들 가운데로 지나 곧바로 빠져 나오셨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긴장감이 팽배해 있었다. 저들은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저들이 믿는 자들이었기에 그분이 믿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이다. 그런데, 아아, 이제 그 믿는 자들이 돌로 칠 준비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That either makes Jesus a colossal liar or the Son of God. To make that claim that's so radical, if it is not true, He is a colossal liar. And we may as well not meet next Sunday. 이로써 예수님은 엄청난 거짓말쟁이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 둘 중의 하나가 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 너무도 극단적인 주장을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해 보자. 그분은 굉장한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요 우리는 다음 주일에 다시 모일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But if it is true, then we better pay close attention and submit ourselves to the truth. Receive the truth. And in receiving the truth, receive freedom from the bondage of sin. We shall know the truth and the truth shall make you free. 그러나 만일 이 주장이 진실이라면, 그 때는 우리가 그 진실에 대해 깊은 관심을 기울이며 우리 자신을 굴복시키는 게 좋을 것이다. 진리를 받아들여라. 진리를 받아들이는 한편, 죄의 사슬로부터의 해방도 받아들여라. 여러분은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그 진리는 여러분을 자유롭게 만들 것이다.

Throughout this congregation tonight, one after another to the hundreds could stand up and give witness of how the truth has made them free. After the first service today when we spoke on the subject, a fellow came up, pulled up his sleeve and showed me the track marks, and he said, Jesus has set me free. I can witness to what you said. “I was a heroine addict and Jesus set me free.” After the third service, a fellow came up. And he said, I have had fifteen years of sobriety, thirteen and a half years of struggle, like Ulysses bound to the mat. But a year and a half ago, I found Jesus Christ and now I am free indeed. 오늘 밤 모인 이 회중 전체 중에서, 수백 명이 차례차례 일어나 진리가 어떻게 자신을 자유롭게 했는지에 대해 간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 1부 예배 때도 동일한 주제로 설교했는데, 예배 후에 한 사람이 다가와 옷소매를 걷어붙이더니 내게 깊은 상처 자국을 보여주면서 예수께서 나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했다. 나는 그 양반이 한 말이 이런 의미라는 것을 안다: “나는 마약 중독자였는데 예수님이 나를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3부 예배 후에도 어떤 분이 다가오더니 이렇게 말했다: 나는 15년 간은 술 없이 잘 지내오다 13년 반 동안은 침상에 묶인 올리세스처럼 발버둥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1년 반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나는 지금 참으로 자유롭게 있습니다.

Yes, you shall know the truth and the truth shall make you free. Or if the Son shall make you free, then you are free indeed. 그렇다. 여러분이 진리를 안다면 그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만들 것이다. 다시 말해서, 아들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한다면 여러분은 참으로 자유로워질 것이다.

Father, thank You for that wonderful freedom that we have in and through Jesus Christ. And Lord, it is

our desire to know You, to love You, to serve You. We desire to be always those things that please You. Take us by the hand and lead us in Your path, let us walk in Your light that we would not stumble but have the light of life through Jesus Christ. In His Name we ask these things, Father, and for His glory. Amen. 아버지시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놀라운 자유를 인하여 당신께 감사를 드리웁니다. 주여,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당신을 알고 사랑하고 섬기게 되는 것이옵니다. 우리는 언제나 당신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기를 원하옵니다. 우리의 손을 잡고 당신의 길로 인도하시며 당신의 빛 가운데서 행하게 하사,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넘어지지 않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의 빛을 얻게 하소서. 아버지여,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나이다. 아멘.

May the Lord bless and give you a good week of spiritual growth, understanding. May you be diligent in your pursuit after the will of God. And as you study the word, may God open the truth to your heart. May we by next Sunday be another step up the rung of the ladder, into His image, into His likeness, as He draws us unto Himself. 주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며 영적 이해력이 증진되기를 기원하노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일에 부지런하게 되기를 기원하노라. 여러분이 말씀을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진리를 여셔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원하노라. 다음 주일이 될 때까지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께로 더 가까이 오게 하심을 좇아, 우리가 그분의 형상과 그분의 모습을 한층 더 닮아가게 되기를 기원하노라.